

## 진도 남도석성의 주거환경특성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Environment at Namdo Castle in Chindo

임 만 택\*  
Lim, Mann-Taek

#### Abstract

Namdo castle located in Namdong-ri, Imhoi-myon, Chindo-kun Cholla South Province is 610 meters long 5.3 meters high, and 20,000 square meters wide. This castle hasn't an accurate built year record. But there is still a great possibility of its having been built in the Sam-kuk (Three Kingdoms) era (around A.D. 300~700). This castle seems to have been enlarged after 1438 because Manho-pu (lower unit of government office in Chosun dynasty) in Namdopo first appeared in the 20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The main office, guest rooms, official residency of the castle were remov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land of the castle was sold separately for housing in the name of liquidation of Korean history. Thus, the Namdo castle that served as a naval base to defeat the Japan-based pirates' invasions throughout the Chosun period disappeared. As of Oct. 2000, 28 houses including a town hall occupy the site of the castle and are expected to be removed according to the restoration program of the castle. In this thesis, I'd like to study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in the site of the castle. To figure out the direction of the restoration program. I interviewed a few relating public officials in Chindo County Offic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I surveyed the residents for the surrounding of housing.

Keywords : Namdo castle, Chindo-kun, Chosun period, characteristics of housing

주요어 : 남도석성, 진도군, 조선시대, 주거특성

#### 1. 서론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에 위치한 南桃石城은 사적 제12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길이 610 m, 높이 5.3 m 내외, 폭 2.5~3 m, 면적 20,000 m<sup>2</sup>이다.

남도석성의 건립 연대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진도군에는 백제시대에 이미 3개 고을이 있었다. 그중에 진도군에 속한 것이 徒山縣(지금의 嘉興)과 買九里縣(지금의 臨淮)인데, 매구리현의 중심이 九桃浦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을들이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삼국시대에 이미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석성은 南桃

浦에 萬戶府가 처음 생긴 것이 조선 세종 20년 정월이므로 1438년에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성안에 건축되었던 동헌, 객사, 관사 등은 일제시대에 모두 철거되고, 토지가 분할 매각되어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오랫동안 왜구의 노략질을 격퇴하곤 했던 수군의 근거지인 이 석성은 일제시대의 역사말살정책에 의해 옛 모습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2000년 10월 현재 마을회관을 비롯하여 28채의 주택과 주민들이 석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 주택들은 석성의 복원계획에 의해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석성이 옛모습을 찾아 복원하기 위하여 주택이 철거됨에 있어 그동안 이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의 조명을 통한 주거환경특성의 기초조사연구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정회원, 조선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논문은 2002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석성의 정비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청, 면사무소 등 담당자로부터 군의 계획을 알아보고, 28가구에 대한 주거의 건축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건축구조 및 실배치를 조사·측정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행한다.

현장 조사기간은 2000년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한다.

## II. 남도석성의 역사적 배경 및 정비계획

### 1. 남도석성의 역사적 배경

1895년에 만들어진 南桃鎭誌에 따르면 당시 이 남도석성에는 군관장교 10명과 기괘관 10명, 진무관 13명, 舟師軍 34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당시 성안의 民戶는 31호이었다. 右水營誌의 기록에는 한 때 이곳에 566명의 수군이 주둔하고 있었다<그림 1>.

이 수군진의 관할구역은 조도해역과 신안군 荷衣島까지 이었다. 이곳에는 180여명이 승선하는 대명선 1척과 증맹선 1척, 소맹선 4척 등 6척의 군선이 있기도 했으며 樓戰船 1척, 병선 1척, 하후선 2척, 방패선 1척 등 5척이 있던 때도 있었다.

현재 남도에는 28가구가 살고 있지만 이곳이 수군

진으로 이용되었을 때의 가구는 성밖을 합하여 191호에 달하기도 했었다.

진이름(鎭名)은 源山鎭이라고도 불리웠다.

마을 건너 산은 南山이라고 해서 말을 기르는 목장으로 이용했고, 마을 뒷산은 中丘山이라고 했으며, 마을 냇은 가는골 또는 細雲川이라고 했다. 이 냇에는 2개의 虹橋가 있다.

성안 관아로는 객사, 동헌, 진무청 등이 있었고, 창고로는 격량고, 보군고, 군기고가 있었으며, 성 남문 밖에 선창고가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왜군의 공격을 받아 부서진 성은 둘레 1,040尺, 높이가 12자로 쌓았다. 우수영 지에는 이 성의 둘레를 1,233자, 높이를 8자라 했으므로 어느 때인가 변한 것이다. 지금 남아 있는 성의 둘레는 610m이고, 높이는 5.3m 내외이다. 성에는 동문과 서문, 남문의 3개의 문이 있고, 성을 타고 오르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옹성은 7개, 성 위에 쌓은 雉堞은 43개라는 기록도 보인다<sup>1)</sup>.

성안 마을회관 앞에는 1753년(건륭 18년)에 세운 金益大 만호, 1849년(道光 29년)에 세운 徐星祿 만호, 1864년(同治 13년)에 세운 李贊弘 만호, 1875년에 세운 金明河 만호 등 5명의 전장 기념비가 남아 있다.

### 2. 정비계획

진도군에서는 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해양문화 관광핵으로서 남도석성지구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대상지의 현황을 보면 다도해해상 국립공원지역으로서 내륙으로 들어온 바다와 인접해 있어양호한 경관을 갖추고 있고, 성벽 및 성 주변의 해자, 홍교 등이 원형에 가깝게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석성 주변은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있어 시설 입지 및 개발가능지가 풍부한 편이다.

주된 개발방향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공간 창출과 관광상품화 유도, 석성 내 거주민은 새로운 거주지를 조성하여 이주시키고, 공방촌 중심의 시설 배치 등으로 정하고 있다.

주된 개발계획은 성내에 남도의 특징을 표현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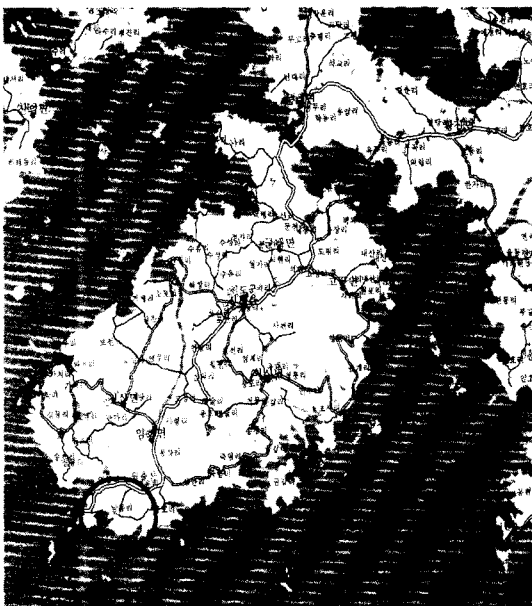


그림 1. 남도석성의 위치

1) 진도문화원(1997), 옥주의 일, 진도문화원, p.96.

표 1. 가옥 세부 현황

가옥	소유자	건축년도	구조	향	부일위치	지붕형태	지붕재료	외벽재료	안채면적 (m <sup>2</sup> )	부일면적 (m <sup>2</sup> )
1	석영오	1945	4칸일자형	남서	북동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벽위모르터	88	5.0
2	김종식	1968	5칸곱은자형	남	북동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블록	59	10.0
3	김덕환	1940	4칸일자형	남	남동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타일	52	8.4
4	김평득	1945	4칸일자형	남	북동	우진각	안채(슬)	흙벽위모르터	36	10.6
5	김성우	1945	4칸일자형	남	북동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	45	7.8
6	김태진	1925	4칸일자형	남	중앙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	38	8.4
7	박남일	1950	4칸일자형	남서	동남북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벽위모르터	31	4.7
8	이소진	1972	4칸일자형	남서	중앙	우진각	안채(슬)	흙	23	7.8
9	최정섭	1936	4칸일자형	남	북서	우진각	안채(슬), 측사(슬)	흙벽위모르터	61	11.0
10	김봉길	1972	3칸일자형	남	중앙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블록	52	8.8
11	김길섭	1947	4칸일자형	남서	북동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	72	18.7
12	김순만	1947	4칸일자형	남	중앙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	54	6.7
13	김종국	1950	5칸일자형	남	북동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벽위모르터	90	13.0
14	김홍식	1949	5칸일자형	남	북동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벽위모르터	67	19.0
15	김홍식	1961	5칸일자형	남동	중앙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벽위모르터	76	5.6
16	박주일	1924	4칸일자형	남	북동	우진각	안(슬), 헛(슬), 창(슬)	흙벽위모르터	54	10.0
17	김간대	1935	5칸일자형	남	북동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벽위모르터	64	5.3
18	박매심	1925	4칸일자형	동남	중앙	우진각	안채(슬)	시멘트벽돌	58	6.0
19	박정복	1938	4칸일자형	남	중앙	우진각	안(슬), 헛(슬), 측(슬)	흙벽위모르터	60	9.2
20	김관일	1921	4칸일자형	동	북서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벽위모르터	43	11.3
21	박신단	1936	5칸일자형	남서	북동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벽위모르터	60	22.3
22	강남석	1945	4칸일자형	남	서남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	60	11.1
23	김종식	1966	4칸일자형	남서	동남북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벽위모르터	85	20.2
24	김양옥	1948	5칸일자형	동남	중앙	우진각	안(슬), 헛(슬), 창(슬)	흙벽위모르터	85	9.6
25	이태옥	1922	4칸일자형	남	북서	우진각	안(슬), 헛(슬), 창(슬)	흙벽위모르터	62	11.0
26	이복금	1956	5칸일자형	남	중앙	우진각	안(슬), 헛(슬), 측(슬)	흙	87	18.0
27	원막금	1925	5칸일자형	동남	중앙	우진각	안채(슬)	흑벽돌	76	14.6
28	김중선	1935	5칸일자형	동	북동	우진각	안채(슬), 헛간(슬)	흙벽위모르터	92	21.4

있는 공방촌(셋골나이, 烙竹匠, 돌살나이, 彩箱匠, 粧刀匠, 鑰器匠, 製瓦匠, 甕器匠, 弓矢匠, 참빛장, 玉工匠, 竹簾匠)을 설치 운영하고, 남도석성의 기본시설(관아, 객사, 병고, 마장 등)과 남문, 서문, 동문을복원하여 만호진성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석성의 외부와 해자 사이에 수목과 꽃을 식재하여 소공원으로 조성한다<sup>2)</sup>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성내의 민가를 모두 철거하고 신거주지를 조성하여 주민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으로 군에서는 주민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 III. 주거의 건축적 특성

남도석성 내에는 일제시대부터 주택이 들어서게 되어 광복이 되기 전까지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현재보다는 더 많은 주택이 건축되었지만 이농현상으로 주택수가 감소되어 현재 건축물은 마을회관을 비롯하여 28채의 주택이 남아있다.

건축년도를 보면 192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건축되었는데 1940년대에 9채로 가장 많고, 다음은 1920년대에 6채, 1930년대에 5채이며, 1970년대에 2채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표 1>.

건축구조는 4칸일자형이 16채로 가장 많고, 다음

2) 진도군(1996), 진도군관광종합개발계획(1996~2005), p.72.

은 5칸일자형으로 9채이며, 대부분이 남향으로 일자형으로 건축되어 있었다. 지붕형태는 모두 우진각이며, 지붕재료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에 의해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개량되어 있는데 안채의 경우는 물론이고 부속사마저 슬레이트로 확일화되어 있어 전통지붕재료가 아쉽고, 슬레이트는 외관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벽재료는 흙벽위 모르터를 바른 경우가 15채로 가장 많고, 다음은 흙벽으로 8채에 시공되어 있었다.

부엌위치는 「북동」 쪽이 11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서 「중앙」 쪽이 10가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안채의 평균면적은 61.8 m<sup>2</sup>인데 비하여 부엌의 평균면적은 11.3 m<sup>2</sup>이었는데, 이것은 안채평균면적의 18.3% 정도이다.

남도석성 보호구역 내 주거현황도는 <그림 2>에, 각 주거의 입면,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은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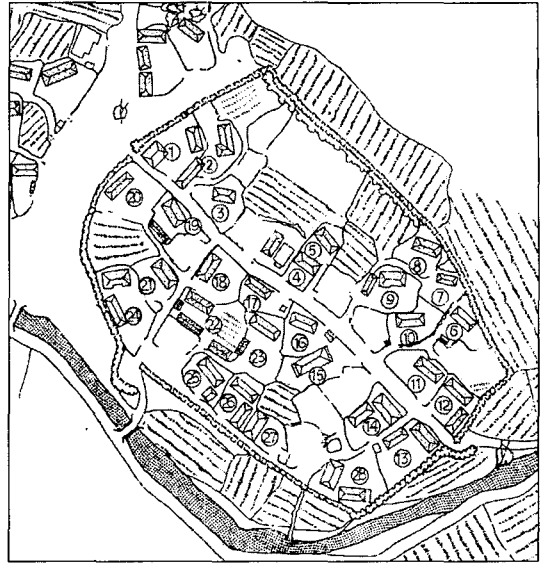


그림 2. 남도석성 보호구역내 주거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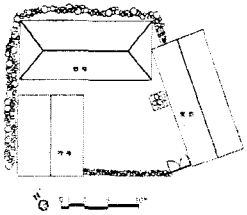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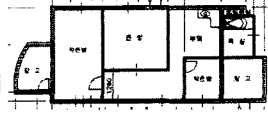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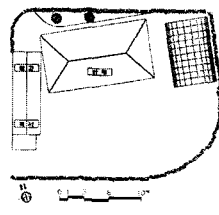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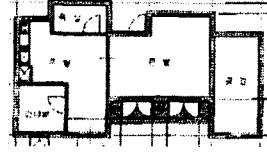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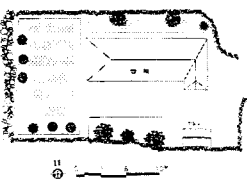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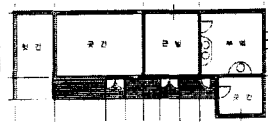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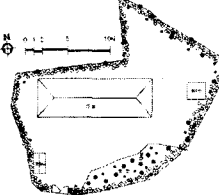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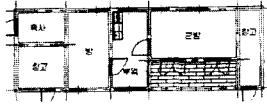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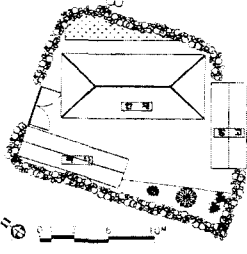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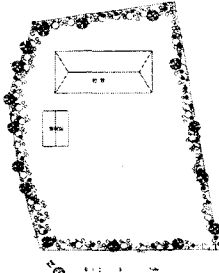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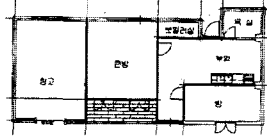
석영오의 주택		최정섭의 주택	
			
김종식의 주택(1)		김봉길의 주택	
			
김덕환의 주택		김길섭의 주택	
			

그림 3. 주거의 배치도와 평면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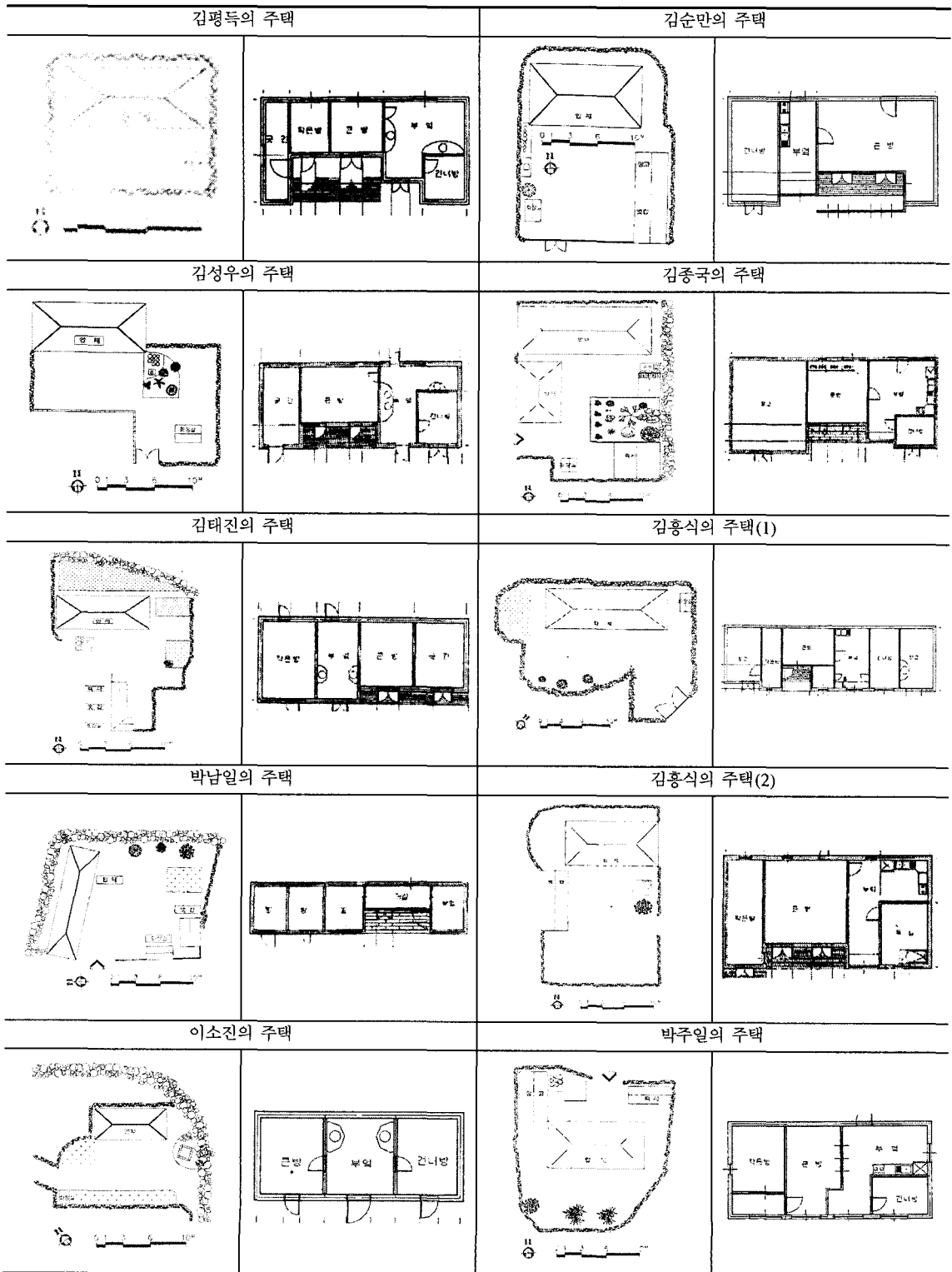


그림 3. 주거의 배치도와 평면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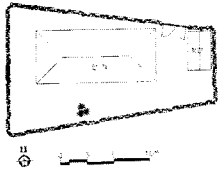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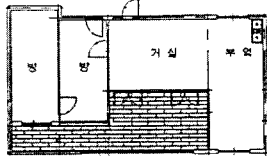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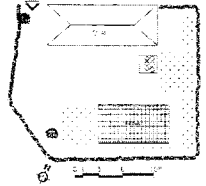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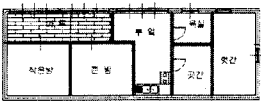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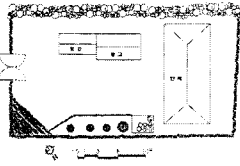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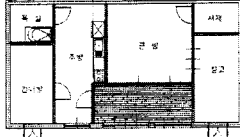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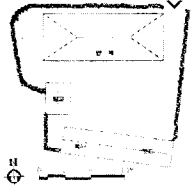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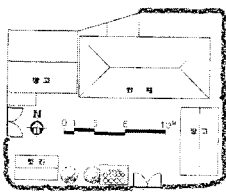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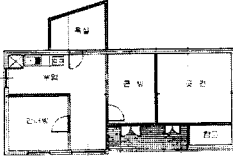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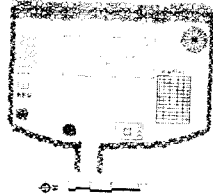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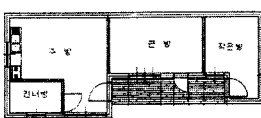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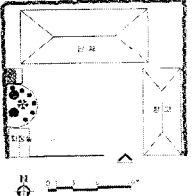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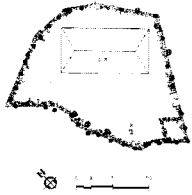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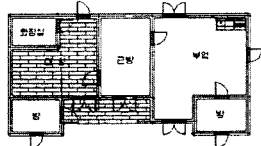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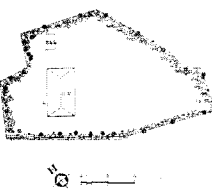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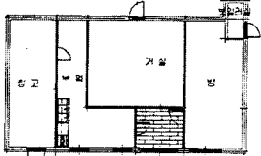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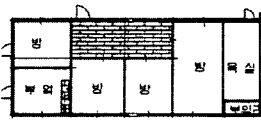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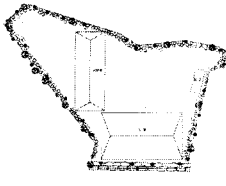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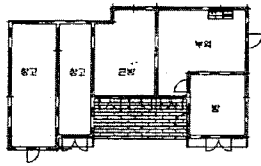
김간대의 주택		김종식의 주택(2)	
			
박매심의 주택		김양욱의 주택	
			
박정복의 주택		이태욱의 주택	
			
김관일의 주택		이복금의 주택	
			
박신단의 주택		원막금의 주택	
			
강남석의 주택		김종선의 주택	
			

그림 3. 주거의 배치도와 평면도



그림 4. 남도석성과 주거

에 나타낸다. 또한 남도석성과 주거의 모습은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 IV. 주거환경의 특성

##### 1. 일반적인 사항

가구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0~59세 19.2%, 40~49세와 30~39세는 각각 11.5%로 나타났으며, 30대 미만은 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2>.

거주 세대를 보면, 주로 부부나, 부부와 자녀가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이 46.1%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혼자서 거주하는 경우는 26.9%, 부부가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구는 11.5%, 노부모와 부부 및 자녀가 동거하는 세대는 11.5%, 노부부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세대는 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수는 2~3인의 경우가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가족수는 3.7인이었다.

대부분 농업이 주소득원이었으며, 바다와 근접한 관계로 어업을 생계로 하는 세대도 일부 있었다.

##### 2. 주생활의 특성

주택의 소유관계를 보면, 대부분의 세대가 자가였으며, 1세대만이 군소유의 주택이었다. 28채의 주택이 있으나 동일 소유주인 경우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실제 세대수는 26세대이었다.

난방시설은 81%가 기름보일러를, 19%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다<표 3>.

부엌은 84.6%가 임식부엌으로 개조하였고, 15.4%가 재래식 부엌을 사용하고 있었다.

취사연료로는 모두 LPG 가스를 사용하는데, 연료

표 2. 거주자의 일반적인 사항

구분	내용	N	%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	14	53.9
	50~59세	5	19.2
	40~49세	3	11.5
	30~39세	3	11.5
	30세 미만	1	3.9
구성 세대	독신	7	26.9
	부부	6	23.1
	부부+자녀	6	23.1
	부모+부부	3	11.5
	부부+부부+자녀	3	11.5
	부부+손자녀	1	3.9
가족수	1인	2	7.7
	2~3인	14	52.0
	4~5인	3	12.0
	6~7인	7	28.0
	8인 이상	1	3.9
직업	농업	19	73.1
	어업	4	15.3
	공무원	1	3.9
	무직	2	7.7

는 주로 주거 뒤쪽에 두고 사용하고 있었다.

곡식 보관 장소로는 공간에 보관하는 세대가 30.8%, 창고 23.1%, 기타 46.1%로 나타났는데, 기타로는 주로 건물의 빈방이나 마룻방에 보관하고 있었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는 세대는 80.8%, 갖추지 않고 있는 세대는 19.2%로 나타났다.

급수시설은 하나의 지하수를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하수관은 1세대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에 모두 매설되어 있었다.

화장실은 대부분이 옥외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거

표 3. 주생활의 특성

구 분	내 용	N	%
주택소유	자 가	27	96.4
	차 가	1	3.6
난방시설	기름보일러	21	81.0
	연탄보일러	5	19.0
부업형식	입식부업	22	84.6
	재래식부업	4	15.4
곡식보관	곳 간	8	30.8
	창 고	6	23.1
	기 타	12	46.1
목욕시설	온수시설	20	76.9
	비온수시설	1	3.9
	없 음	5	19.2
화장실 시설	제거식	11	42.3
	3조식	10	38.5
	수세식	5	19.2
생활상 불편한 점	쓰레기처리	6	23.1
	도로의 정비	5	19.2
	자녀의 취학	5	19.2
	교 통	3	11.5
	전 기	1	3.8
	기 타	3	11.5
	불편사항 없음	3	11.5
생활상 만족한 점	맑은 공기	10	38.5
	좋은 경관	7	26.9
	정신적 안정	6	23.1
	기 타	3	11.5

식이 42.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3조식으로 38.5%, 수세식은 19.2%로 나타났다. 분노의 처리는 대부분이 용역회사에서 수거해 가지만 3세대만이 거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생활상 불편한 점으로는 쓰레기의 처리가 2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도로의 정비와 자녀의 학교문제가 각각 19.2%로 높게 나타났다. 도로의 정비에 대한 불만은 이 지역이 문화재관리보호법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법에 의해 도로의 확·포장이나 주거의 신축 및 개축 등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타 사항이 각각 11.5%, 교통문제가 7.7%, 전기가 3.8%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편사항이 없다는 가구도 11.5%이었다.

만족스러운 점은 깨끗한 공기가 38.5%로 가장 높

고, 좋은 경관이 26.9%, 정신적 안정이 23.1%, 기타가 11.5% 순으로 나타났는데, 기타의 의견을 보면 인심이나 인정이 후하고, 바다와 접해 있으며, 기후가 따뜻해서 좋다는 의견들이었다.

성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세대는 특별히 이주할 계획이나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도석성 개발계획에 의해 주거가 모두 철거되어 이주해야 할 때에는 이곳의 가까운 지역에 주거를 신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 3. 주거의 환경적인 측면

주거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채광은 71.4%(20가구)가 양호, 21.4%(6가구)가 보통, 7.2%(2가구)는 불량하다고 응답했으며, 환기는 67.8%(19가구)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반면 17.9%(5가구)는 보통이다, 14.3%(4가구)는 불량하다고 응답했다. 방습은 64.3%(18가구)가 양호, 14.3%(4가구)는 보통, 21.4%(6가구)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음은 32.1%(9가구)가 양호, 50.0%(14가구)가 보통, 17.9%(5가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은 남쪽지방인 관계로 82.1%(23가구)는 양호, 14.3%(4가구)는 보통, 3.6%(1가구)는 불량한 것으로 응답하여 겨울철에는 대체로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풍은 64.2%(18가구)가 양호, 17.9%(5가구)는 보통, 17.9%(5가구)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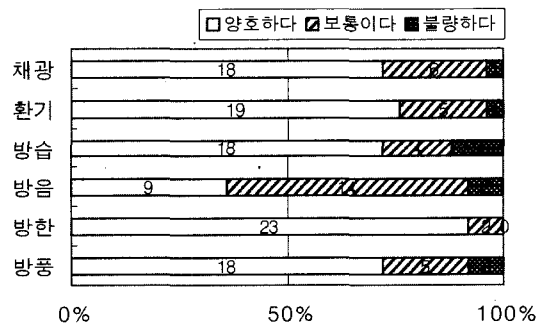


그림 5. 주거의 환경상태

## V. 결 론

남도석성 내 28채의 주거와 그 환경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거의 건축년도를 보면 1940년대에 건축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거의 배치유형별로 볼 때 남향의 4칸 일자형 우진각 지붕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외벽의 재료는 흙벽 위에 모르터를 바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 일반적으로 가구주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거주하는 세대는 주로 부부나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택의 소유관계를 보면 대부분이 자가였고, 난방시설로는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며, 대부분이 부엌을 입식으로 개조하고, 취사연료로는 LPG를 사용하고 있었다.

4. 목욕시설은 대부분 갖추고 있었으며, 급수는 지하수를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화장실의 경우 주로 옥외의 제거식이 가장 많았다.

5. 성내에 살면서 불편한 점 가운데 쓰레기가 잘 처리되지 않아 불편을 느낀다는 가구가 많았으며, 맑은 공기를 살기에 만족스럽게 여기는 가구가 많았다.

6. 주거 환경적 측면에서는 채광, 환기, 방습, 방한, 방풍의 경우 양호한 것으로, 방음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진도군의 관광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남도석성의

옛 모습으로의 복원에 따라 주거가 철거될 때 주민들은 석성에서 가까운 지역에 새로운 주거를 건축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터전에서 앞으로도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8. 관광지의 개발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지나친 상업시설화하여 옛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된다는 점, 주변 지역민의 주거환경을 훼손하여 거주성을 불량하게 한다든지, 역사적 환경이 오히려 파괴된다는 점 하는 역효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계획에서부터 실행에까지 세밀한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두산동아백과사전연구소(1996),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2. 뿌리깊은나무(1986), 한국의 발견(전라남도편), 뿌리깊은나무.
3. 임만택외(1994),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제10호, 135-143.
4. 임만택외(1992), 낙안읍성의 민가와 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2권 제2호, 117-121.
5. 임만택(1998), 주거환경계획, 기문당.
6. 임만택(2000), 건축환경계획, 보문당.
7. 진도문화원(1997), 옥주의 얼, 진도문화원.
8. 진도군(1996), 진도군관광종합개발계획(1996~2005).
9. 한국세계대백과사전(1997), 동서문화.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